

일상 생활 속 강아지 건강 체크

배설물 상태로 건강체크
배설물은 개의 여러 가지 상태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. 배설의 묽은 정도로 알맞은 사료의 양 을 조절할 수도 있고(묽다면 식사량이 많은 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적은 편입니다) 소변 의 횟수나 양 , 설사와 변비 등을 체크 함으로서 이상상태를 파악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개가 소변을 아예 보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귀(ear)
귀의 이상은 머리의 흔들과 악취 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. 개들은 귀에서 아픔이나 불 쾌감 등이 느껴지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머리를 흔들어대거나 긁습니다. 개에게 흔한 귓 병의 증세는 외이에 생기는 외이염 입니다. 이 외이염은 점점 악화 되면 중이염 혹은 내이 염까지 발전 할 수도 있으니 초기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. 외이염의 증상은 더러움,악취,가 려움증이 있으며 귀진드기 역시 같은 증상을 보입니다. 특히 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전염 이 빠르므로 조기발견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. 강아지가 유난히 머리를 흔들어 대거 나 긁어 댄다면 즉시 살펴보고 평소시에 귀 청결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.
눈(eyes)
자신의 앞발로 눈을 할끈다거나 눈을 제대로 못 뜨고 안절부절 한 상태라면 눈에 고통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. 또한 눈곱의 색으로 이상상태를 파악 할 수도 있는데 특히 노란색이나 검은 색 눈곱이 발생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.
코(nose)
코는 일단 콧물의 양과 색깔 끈적임 정도가 평소와는 다를 때 혹은 재채기를 계속 할 때 는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. 흔히 코에 수분 끼가 없다면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라 생각하는데 코의 마름 정도는 질병과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 다.
입(mouth)
평상시보다 입 냄새가 지독해지고 다량의 침이 나온다면 입이나 치아 내장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 입니다. 입안에 상처가 나거나 치아상태가 좋지 않다면 음식을 씹거나 먹는 속도 등이 평상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피부(skin)
몸을 계속 긁는 증상 혹은 털에 눈에 띄게 비듬이 늘거나 탈모 등의 증상이 보인다면 피 부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. 곰팡이 균에 의한 피부병은 탈모와 가려움증이 동시에 발생하 기도 합니다. 특히 탈모일 경우에는 부분 탈모인지 전체적인 탈모인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